

수산분야 현안을 듣기 위해 인천종합어시장 찾는다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인천종합어시장 유통업계 간담회 개최-
- 6월 1일 자갈치시장을 시작으로 유통업계 릴레이(Relay) 간담회 이어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8일(목)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상인과 인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규모가 큰 도매시장에 비해 영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천종합어시장을 국내 양식 활어 유통 1번지로 일구어내신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수산업계 당면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부터 경남·제주·전남·경북 등 권역별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유통업계 간담회를 이어간다. 이와 관련, 송 차관은 지난 6월 1일 자갈치시장과 6월 2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했으며, 6월 중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도매시장 관계자를 차례대로 만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송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바닷물과 수산물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다”며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은 물론 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과학에 기반한 소통과 정보제공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사무관	윤기준 (044-200-5443)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장원 (044-200-5940)
		담당자	사무관	김수정 (044-200-5803)